

# 이중 모음 /ㅟ/의 음성 실현

황연신, 최혜원, 이호영  
서울 대학교, 국립국어연구원, 서울 대학교

## Phonetic realization of diphthong /je/

yoen-shin Hwang, hye-won choi, ho-young Lee

hys74@snu.ac.kr, choihw@korea.ac.kr, hylee@snu.ac.kr

### Abstract

The Korean diphthong /je/ is realized monophthong /e/ or neutralized /E/ in real speech generally. And diphthong /je/ was changed by preceding consonants and place of syllable. In case that preceding consonants exist, /je/ is realized as it is /je/, but in case that preceding consonants don't exist, /je/ is changed variously.

In case that /je/ is in second syllable place, /je/ is realized monophthong /e/ and in case that /je/ is in first syllable place, /je/ is realized diphthong /je/.

본 조사의 피실험자 수는 총 210명으로서, 출생지가 서울과 인천, 경기 지역인 화자에 한정하였고 부모 또한 주로 서울, 경기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선정하였다. 제보자의 성별과 연령을 70대를 제외하고는 균등하게 분포하도록 하였다.

| 연령별 |     | 성 별 |      | 출생지 |      |
|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-|
| 20대 | 36명 | 남   | 104명 | 서울  | 132명 |
| 30대 | 42명 | 여   | 106명 | 경기  | 72명  |
| 40대 | 43명 |     |      |     |      |
| 50대 | 42명 |     |      |     |      |
| 60대 | 41명 |     |      |     |      |
| 70대 | 6명  |     |      |     |      |

표 1 피실험자 인적 사항

### I. 서론

본 논문은 국어의 이중 모음 /ㅟ/가 현실에서 어떻게 발음되고 있는지 알아보고, 선행 자음과 위치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2002년도에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실시했던 ‘표준 발음 실태 조사’를 통해 수집·기록되었던 단어 목록 중 본 논문에서는 /ㅟ/를 포함한 단어만 한해서 살펴보기로 한다.

본 논문은 실제 대화체를 이용하지 않고 선정된 단어를 문장 속에 포함하여 제보자들이 자연스럽게 낭독하도록 한 자료를 이용하였다.

조사 단어가 포함된 문장은 다음과 같다.

### II. 연구 방법

| 번호 | 단어       | 조사 문장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예        | 선생님은 예를 들어 가며 설명하였다.      |
| 2  | 예의       | 그 젊은이는 어른들에게 예의가 바르다.     |
| 3  | 예사로<br>이 | 그는 무슨 일이든 예사로이 넘기는 법이 없다. |
| 4  | 노예       |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.   |
| 5  | 명예       | 그는 명예를 좇으며 살았다.           |
| 6  | 가계       | 거듭되는 지출로 가계는 적자가 되었다.     |
| 7  | 계절       |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.             |
| 8  | 폐백       | 결혼식을 마치고 시어른들께 폐백을 드렸다.   |
| 9  | 차례       | 학생들은 차례대로 차에 올랐다.         |
| 10 | 혼례복      | 신랑 신부가 전통 혼례복을 차려 입었다.    |
| 11 | 시계       | 안방에 있는 시계는 40분 빠르다.       |
| 12 | 장례       | 상여도 없는 간단한 장례 행렬이었다.      |
| 13 | 지혜       | 문화 유적에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.   |

표 2 /키/ 음가 조사 문장

이렇게 수집된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청취 훈련을 받은 2명의 조사자가 청취를 통해 음성 전사하였다.

### Ⅲ. 연구 결과 및 논의

표준 발음법 제 5장에서는 ‘예’, ‘례’ 이외의 ‘키’는 [키]로도 발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 이것은 철자로 표기된 ‘예’, ‘례’를 가리키는 것으로 표 1의 [∅]<sup>1)</sup>와 [ㄴ],[ㄹ]이 이에 해당한다.

‘예’로 표기된 단어의 발음은 90% 이상이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였으나 ‘혼례복’, ‘차례’에서 ‘례’의 발음은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. ‘장례’에서 ‘네’는 단모음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비율이 아주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.

‘키’는 음절 위치에 따라서도 그 음가가 변하는데 첫 번째 음절에서보다 두 번째 음절에서 단모음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났다. 이는 대부분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‘예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. 따라서 이중 모음 ‘키’의 발음에 대한 규정은 우선 이중 모음 ‘키’가 나타나는 음절 위치를 고려한 후 ‘예’ 이외의 ‘키’는 [키]로도 발음이 가능하다.’ 정도로 고쳐져야 할 것이다.

1) 선행 자음이 없다는 표시이다.

|   | [je]/[jE]       | [e]/[E]         | 기타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∅ | 949<br>(90.38%) | 101<br>(9.62%)  |              |
| ㄱ | 137<br>(21.75%) | 493<br>(78.25%) |              |
| ㄷ | 77<br>(36.67%)  | 133<br>(63.33%) |              |
| ㄹ | 114<br>(27.14%) | 300<br>(71.43%) |              |
| ㄴ | 105<br>(50.00%) | 100<br>(47.60%) | 5<br>(2.40%) |
| ㅎ | 24<br>(11.43%)  | 186<br>(88.57%) |              |

표 3. 선행 자음에 따른 이중 모음 /키/의 발음

|                  |       | [je]/[jE]       | [e]/[E]         | 기타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∅                | 첫째 음절 | 615<br>(97.61%) | 15<br>(2.39%)   |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둘째 음절 | 334<br>(79.52%) | 86<br>(20.48%)  |               |
| 선행<br>자음이<br>올 때 | 첫째 음절 | 171<br>(40.71%) | 249<br>(59.29%) |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둘째 음절 | 286<br>(22.70%) | 963<br>(76.43%) | 11<br>(0.87%) |

표 4. 음절 위치에 따른 이중 모음 /키/의 위치별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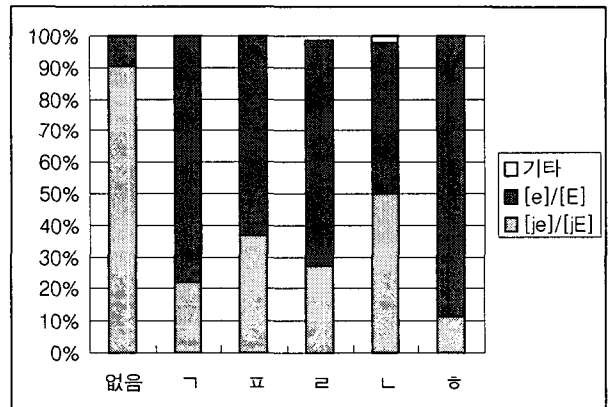


그림 1 선행 자음에 따른 이중 모음 /키/의 음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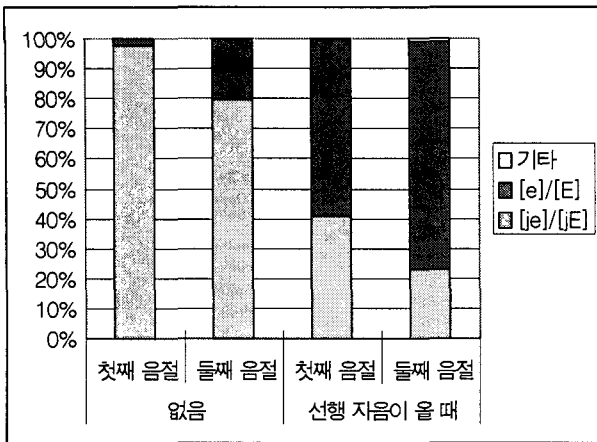


그림 2 음절 위치에 따른 이중 모음 /ㄱ/의 음가

#### IV. 결론

표준 발음법 제 5장에서 ‘예’, ‘례’ 이외의 “ㄱ”은 [k]로도 발음한다고 규정한 /k/의 음가가 현실에서 어떻게 발음되는지 조사한 결과, 선행 자음이 있는 경우 대부분 단모음으로 발음되는 결과를 나타내었고, 선행 자음이 없는 경우에는 이중모음 음가 그대로 발음되는 비율이 90% 이상을 차지하였다. 선행 자음이 있는 경우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, 선행 자음이 [ㄴ]일 경우에만 이중 모음 음가 그대로 발음되는 비율과 단모음으로 발음되는 비율이 비슷했고, 그 밖(‘ㄱ’, ‘ㄷ’, ‘ㅈ’)의 자음이 선행할 경우에는 단모음으로 발음되는 비율이 더 컸다.

/k/는 음절 위치에 따라서도 다른 음가를 나타냈는데, 첫째 음절에서보다 둘째 음절에서 단모음으로 발음되는 비율이 더 컸다. 다만 선행 자음이 없는 경우 첫 번째 음절에서는 97%, 둘째 음절에서 79% 이상이 이중모음 음가 그대로 발음되었고, 선행 자음이 있는 경우, 첫째 음절에서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는 비율은 약 40%, 둘째 음절에서 이중 모음으로 발음되는 비율은 22%였다.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수치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이중 모음 /k/는 첫째 음절에서 발음될 때 본래 음가 그대로 발음되는 경향이 더 크지만 선행 자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치가 크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.

#### 참고문헌

- [1] 최혜원 표준 발음 실태 조사, 국립국어연구원, 2002
- [2] 이호영 국어 음성학, 태학사, 1999
- [3] 이현복 한국어의 표준발음, 교유과학사, 1989
- [4] 이현복 “방송 언어와 표준 발음”, 새국어생활 3-1, 1993